

최 인 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프 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전공
남 선 미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프 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최 인 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전공

남 선 미

인 준 서

남선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2004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세기말 예술분야인 회화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요부형의 이미지인 '팜므 파탈(Femme Fatale)'의 주제를 통하여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메이크업 (Make-Up)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팜므 파탈을 더욱 다양하게 연구하기 위해 잔인, 신비, 선정의 3가지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분류한 이미지에 맞는 요부형의 인물들을 분류하여 배경을 설명하고 그 인물들이 등장한 회화작품을 선별하여 각각의 잔인, 신비, 선정의 이미지를 표현한 회화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으로 I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고 II장에서는 팜므 파탈의 정의와 사회적 출현 배경을 살펴보고, 팜므 파탈 이미지를 3가지로 분류하여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회화작품에서 묘사된 이미지 요소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연구한 팜므 파탈 이미지별 회화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을 연구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의 연구한 회화 요소와 메이크업 요소들의 연구결과를 배경으로 본 연구자가 각각의 이미지별로 직접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 본 논문의 V장 결론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과와 요약, 후속 될 연구과제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팜므 파탈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스 신화와 성서의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잔인, 신비, 선정의 이미지를 분류, 분석하였다. 회화작품은 19세기를 전후한 화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해외 4대 컬렉션(Collection)의 메이크업과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의 메이크업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회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과 메이크업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 회화와 메이크업의 요소들은 동일한 표현법으로 나타났다.

둘째, 잔인한 이미지에서는 강한 명암 대비, 어두운 색 사용 등의 요소가 나타났다.

셋째, 신비한 이미지의 작품에서 표현된 요소는 장식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부드러운 분위기와 화사한 색상의 사용, 섬세한 붓 터치 등의 요소가 표현되었다.

넷째, 선정의 이미지에서는 색의 대비 효과, 강렬한 색상의 사용 등의 요소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메이크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메이크업의 요소만으로 의도하는 이미지를 찾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 즉, 헤어나 의상, 모델들의 포즈와 얼굴 표정 등의 요소들과 함께 연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안 점으로는 메이크업이 다른 부수적인 요소 즉, 헤어나 의상의 요소들 없이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들만으로도 이미지를 표현하고, 연상될 수 있는 요소들의 표현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팜므 파탈의 예술적 특성	5
1. 팜므 파탈의 정의와 예술적 배경	5
2.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므 파탈 이미지와 회화적 분석	9
1) 잔인	9
2) 신비	16
3) 선정(煽情)	22
III. 메이크업에 표현된 팜므 파탈 이미지별 특성	28
1. 잔인	29
2. 신비	33
3. 선정 (煽情)	36
IV. 팜므 파탈 이미지를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39
1. 잔인	39
2. 신비	42
3. 선정(煽情)	44
IV. 결론	46

참고 문헌

ABSTRACT

도 목 차

<도 1> 베아타 베아트릭스	7
<도 2>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15
<도 3> 유디트Ⅱ	15
<도 4> 다이아나와 악테온의 죽음	15
<도 5> 악테온의 죽음	15
<도 6> 다나에	20
<도 7> 비너스의 탄생	21
<도 8> 잠자는 비너스	21
<도 9> 파이드라와 테세우스앞에 선 히폴뤼토스	27
<도 10> 파이드라	27
<도 11> 인어	27
<도 12> 오뒤세우스와 세이렌	27
<도 13> 2003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29
<도 14> 2002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30
<도 15> www.nco.co.kr	30
<도 16> 1998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31
<도 17> 2002,03 F/W,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31
<도 18> 2000,01 F/W, 파리,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32
<도 19> 2003 S/S, 파리, 크리스찬 디올(Christian-Dior)	32
<도 20> ESTÉE LAUDER	33
<도 21> www.firstview.com	33

<도 22> Christian-Dior	34
<도 23> 2003, 04 F/W, 밀라노, 펜디(Fendi)	34
<도 24> 2003 S/S, 파리, 크리스찬 디올(Christian-Dior)	35
<도 25> 2003 S/S, 런던, 라파엘 로페즈(Rafael Lopez)	35
<도 26> 2002,01 F/W, 뉴욕, 안나수이(Anna Sui)	36
<도 27> 2003 S/S, 밀라노, 베르수스(Versus)	36
<도 28> 2003,04 F/W, 파리, 셀린느(Celine)	37
<도 29> 2002,03 F/W, 밀라노, 막스마라(MaxMara)	37
<도 30> 2004 S/S, 파리, 발렌티노(Valentino)	38
<도 31> 2003 S/S, 런던, 보디카(Boudicca)	38
<도 32> 1998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40
<도 33> 2003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41
<도 34> 잔인 이미지	41
<도 35> 2000 S/S, 파리, 발렌티노(Valentino)	42
<도 36> 신비 이미지 - 1	43
<도 37> 신비 이미지 - 2	43
<도 38> 2004 S/S, 파리, 발렌티노(Valentino)	44
<도 39> 선정 이미지	45

I. 서론

세기가 시작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본능적인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수단으로 메이크업이 시행되고 있다. 메이크업은 역사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외적 표현수단으로 지속되어져 왔고 시대를 거쳐 오면서 다양한 장르로 변화 되어가고 있다.

메이크업 요소들을 인체의 일부에 부여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개성미를 창출하여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매력과 개성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현대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있다. 많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여성의 아름다움의 욕구가 높아지며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며 미학적 접근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예술 장르로 까지 폭넓게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¹⁾

메이크업이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와 연결된 분야로 평가되고 문화 예술 전반에 미술적인 요소 즉, 회화적 특징에 걸친 관계성을 연구하고 있다. 예술 분야의 회화는 형태나 색채로서 조형적인 방법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회화는 점, 선, 면의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며, 회화의 표현 요소로는 화면에 표현된 물체의 크기, 부피, 무게등의 느낌인 양감의 요소, 화면 전체에서 느껴지는 밝고 어두움, 색깔의 진하고 흐림에 의해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는 색조의 요소와 물체에 빛이

1) 김경순외, Make-upⅡ,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p12.

비칠 때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단계를 말하는 명암의 요소가 있다. 또 한 물체에 생기는 그늘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색이나 형 등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강조의 요소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예술분야, 특히 회화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팜프 파탈(Femme Fatale)²⁾을 주제로 회화의 표현 요소를 도입한 메이크업을 연구하고자 한다.

팜프 파탈은 남성을 절망적인 상황이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요부형의 이미지이다. 매혹과 공포의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현대의 대중문화에도 흔히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성 이미지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요부의 이미지가 특히 세기말 예술분야에서 유행한 이유는 그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신여성들이 등장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동등한 성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상황에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적 공포와 욕망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예술분야에 투영되어 유행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예술분야인 회화에서는 1870년을 전후하여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Fossetti)와,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가 팜프 파탈의 요소를 반영한 작품을 발표하여 시각적으로 확립시켰다.

팜프 파탈의 주제에서는 잔인, 신비, 선정 3가지 이미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잔인한 이미지는 남성을 극단적으로 살해하거나 철저한 계획 하에 살해하는 요부 형들은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 질투심이 만들어낸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상이다. 이러한 잔인한 이미지의 화화요소로 어두운 색이 주를 이루는 무거운 분위기와 극적인 명암법, 뚜렷한 음영의 요소가 나타난다.

2) Femme Fatale은 불어로서 원래 영국인들이 프랑스여성은 관능적이고 위험하다는 뜻으로 프랑스 여성을 지칭하던 말이었다.

잔인한 이미지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유디트(Judith)의 실화를 회화로 옮겨 잔인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림을 그린 17세기에 활동한 여성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Artemisia Gentileschi)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의 회화에서 나타난 회화요소로는 과감한 형태와 무거운 색상의 사용, 명암 대비가 나타나지만 무겁고 어두운 색을 더 많이 표현하는 요소가 특징이다. 또한 주인공들의 과감한 포즈나 독기 서린 얼굴표정들도 그림에서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다.

신비한 이미지는 남성들 스스로 매료되어 여성에 대한 성 정체성을 연관시켜 에로틱한 성적 환상을 느끼고픈 남성들이 탄생시킨 이미지이며, 회화에서는 신비한 이미지의 인물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가 그린 '다나에'란 작품으로 다나에(Danae)가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³⁾를 맞아들이는 순간의 신비함과 관능적인 만족감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본 신비한 이미지의 회화 요소로는 전체적으로 은은한 분위기, 섬세한 선들과 부드러운 형태의 표현, 은은하고 화사한 색상 등의 표현 요소로 나타나있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여성스럽고 화려한 장식적 요소 또한 신비함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정 이미지는 섹시한 자세와 도발적인 표정들로 숨을 멎게 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이미지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을 단지 성적쾌락의 도구인 육체에만 탐닉하는 남성들의 속성을 저주하고 지배당하는 성에서 지배하는 역할로 탈바꿈하기 위해 나타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선정적 이미지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파이드라(Phaedra)가 있으며, 음탕한 파이드라를 화가 피에르-나르시스 퀴랭(Baron Pierre Narcisse Guérin)은

3)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최고의 신.

‘파이드라와 테세우스 앞에 선 히폴뤼토스’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침하고 뚜렷한 명암 대비보다는 무거운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색상의 대비요소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선정적 이미지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팜므 파탈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팜므 파탈 이미지를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회화작품에서의 회화의 표현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을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한 요소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예술분야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과 메이크업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은 비슷한 양상 즉, 회화에서 표현되어진 요소들이 메이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메이크업과 회화 요소들의 깊은 관련성 존재를 확인하여 메이크업이 회화와 직결되어 있는 예술로써 인식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팜므 파탈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화와 성서의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잔인, 신비, 선정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회화작품은 19세기를 전후한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였고, 해외 4대 컬렉션(collection)의 메이크업,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등의 메이크업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팜므 파탈의 예술적 특성

1. 팜므 파탈의 정의와 예술적 배경

팜므 파탈은 19세기말 심미주의와 상징주의 문학과 미술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요부형 이미지를 뜻한다.⁴⁾ 남성을 절망적인 상황이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 이미지를 일컬어 팜므 파탈 이라고 불렀다. 팜므 파탈을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요부'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영미와 독일에서 이루어진 팜므 파탈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도 fatal woman 또는 ver hängnisvolle frau 라는 번역어 보다는 불어에 어원을 둔 femme fatale 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팜므 파탈 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용되고 있다.⁵⁾

팜므 파탈의 이미지는 대부분 관능적 이미지로 한정되어 있는 듯 하지만 남성들을 파멸로 이끌기에 충분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내포 되어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잔인, 신비, 선정적 3가지의 이미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잔인한 이미지는 남성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잔인한 이미지가 있다. 잔인한 이미지의 요부들은 독살스럽고 표독스러운 얼굴 표정, 도도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사건에 따라 극단적인 살인이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남성을 유혹하여 잔인하게 살해하는 여성들이 잔인한 이미지이다. 이러한 잔인한 이미지의 요부형은 남성에게 대한

4) 이명옥, 팜므 파탈 (다빈치, 2003), p263.

5) 이화진, "팜므 파탈 Femme Fatale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8), pl.

중오심과 복수심, 질투심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표상이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다. 비밀을 감춘 듯 베일에 쌓여 있는 표정과 눈빛들로 하여금 남성들 스스로가 매료될 수 있도록 강렬히 끌어들이는 마력의 힘을 가진 신비로운 이미지이다.

이런 신비한 이미지는 복종하는 듯한 부드러움과 무시하는 듯 무관심한 태도에 성 정체성을 연관시켜 여성에 대한 에로틱한 성적 환상을 느끼고픈 남성들이 탄생시킨 이미지이다.

마지막으로 섹시한 자태와 도발적인 표정들로 숨을 멎게 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도발적인 선정의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을 단지 성적 쾌락의 도구인 육체에만 탐닉하는 남성들의 속성을 저주하고 지배당하는 성에서 지배하는 역할로 탈바꿈 하기위해 나타난 이미지이다.

세기말에 예술분야인 문학과 회화에서 팜므 파탈의 주제에 매료되어 유행한 이유는 세기말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의식에 눈을 뜬 신여성들이 등장하던 시기로 전통적인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였다. 여성들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여성 참정권운동, 여성해방 운동 등의 참여로 동등한 성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였다. 남성들의 일방적인 성적 대상물로부터 탈출 하려는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남성들은 희생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입장으로 변신하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이지만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성적 존재로 매혹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상황에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과 공포가 팜므 파탈에 반영되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곧 예술영역인 문학과 회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요부들이 출현하여 득세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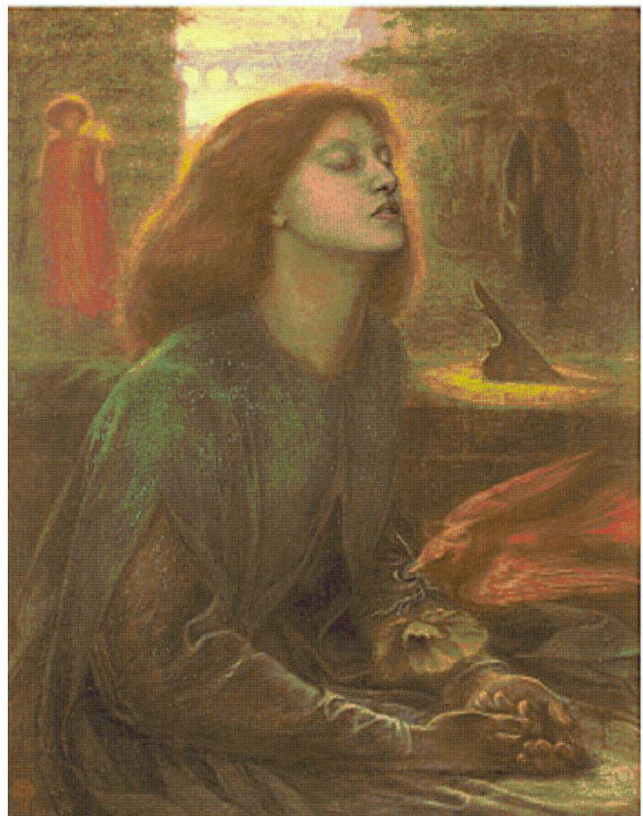
요부의 이미지가 예술의 영역에서 그 주제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문학에서 부터이다.

키츠(Jone Keats)7)의 시 잔인한 여성(La Belle Dame Sans Merci)에서 긴 머리 카락으로 남성의 목을 휘감아 죽이는 여성을 마술적이면서 신비스러운 고통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입증하는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8)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과 함께 회화에서도 1870년대를 전후에 본격적으로 팜프 파탈의 도상이 확립되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와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자인 구스타브 모로가 이때에 팜프 파탈을 시각적으로 확립시켰다.9)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입증하는 첫 번째 회화로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가 키츠(Jone Keats)의 시 잔인한 여성(La Belle Dame Sans Merci)을 바탕으로 그린 드로잉이 팜프 파탈의 시각적 도상을 예견하는 요소들이 첨부된 회화이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1862년 회화작품 베아타 베아트릭스(Beata Beatrix) (도1)에서 창백한 얼굴과 관



<도 1>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베아타 베아트릭스 (라파엘 전파, p164)

6) 이명옥, Op.cit, p.264.

7) 영국이 휴머니스트 문학가.

8) 월간 미술, (서울:(주)월간미술,2001), p45.

9) Ibid, p46.

능적으로 뒤로 젖힌 노출된 긴 목, 살짝 감은 눈, 반쯤 벌린 입술의 권태로운 분위기와 작품 전체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이후에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회화작품에 대표적인 요부형의 요소로써 팜므 파탈의 전형을 이루어 나간다.

영국의 로제티가 여성을 관능적이고 유혹적인 이미지만을 정형화하여 표현했다면 프랑스에서는 구스타프 모로가 스프링스 같은 합성인간과 살로메를 남성 인물과 함께 등장시킴으로서 팜므 파탈과 남성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자와 희생당하는 자의 대결양상 즉, 사디스트와 마조히스트의 관계로 표현하였다.¹⁰⁾ 이런 작가들의 그림 내용의 등장인물과 그림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팜므 파탈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고 교살시키는 사악성과 위험성을 강화시키는 세기말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영국에서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영향을 받은 휘슬러, 프레드릭 샌디, 번 존스, 비어즐리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구스타브 클림트, 폰 슈톡, 몽크도 팜므 파탈을 등장시킨 걸작을 남겼다.

10) Ibid, p48.

2.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프 파탈 이미지와 회화적 분석

1) 잔인

남성을 극단적으로 살해하거나 철저한 계획하에 살해하는 잔인한 이미지는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 질투심이 만들어낸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상이다.

(1) 유디트 (Judith)

잔인한 이미지로 대표되는 유디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이다. 유디트 실화를 회화로 옮겨 잔인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림을 그린 17세기에 활동한 여성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걸작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도 2)를 그렸다.¹¹⁾

잔인한 유디트를 주제로 작품을 그린 또다른 화가는 오늘날 대중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유디트를 잔인하게 표현하였다.

유디트는 이스라엘의 베툴리아에 살았던 과부였다. 먼 옛날 난폭하고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가 평화롭던 베툴리아를 침략했다. 아시리아¹²⁾ 군의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를 장악한 후 도시를 철저히 유린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보다못한 귀족 출신의 과부 유디트는 홀로페르네스의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질 각오로 나섰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적장에게 미끼로 던져 그를 유혹한 후 살해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유디트의 미모에 현혹된 홀로페르네스는 자제하지 못한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고 기회를 잡은 유디트는 칼을 들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잔인하게 베어버렸다. 그후 대장인 홀로페르네스의 암살 소식에 아시리아 군인들은 모두 놀라 도

11) 이명옥, Op. Cit, p43.

12) 이라크 북부에 세워졌던 국가.

망치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여성의 몸으로 용기를 내어 잔인하게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 조국을 구한 유디트를 영웅으로 열렬히 찬양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여성화가의 일반적 규칙을 깨고 성경과 신화의 주인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서양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여성화가이다.¹³⁾

그의 그림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는 목을 자르는 순간의 유디트를 묘사하고 있는데 에너지 넘치는 강력한 운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되어 육체적으로도 남성을 압도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형태이다. 회화의 표현 요소에 있어서 인물 등의 자세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느낌으로 운동감의 요소이다. 굵은 팔뚝과 표정은 아무리 힘들고 역겨워도 이 남자의 목을 자르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잔인한 표정으로 묘사하고있다. ¹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순간에 나오는 독기와 살기가 화면 전체에서 강하게 풍기고 목을 베는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을 회화 요소의 극적인 명암법에 의해 표현 되어서 입체감과 양감의 요소가 표현된 작품이다.

하얀 시트와 주름을 타고 흘러내리는 검 붉은 피의 설정으로 공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두팔을 길게 내밀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잘라내는 단호하고 섬뜩함이 느껴지는 유디트의 얼굴 표정이 강한 명암대비 요소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원색의 사용이 배제되어 있고 톤 다운(tone down)된 표현과 입체감, 양감이 느껴지는 강한 명암법의 요소, 어둡고 무거운 색의 요소 등이 살해라는 잔인한 분위기를 더욱더 깊게 만들고 잔인한 유디트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잔인하게 느껴진다.

잔인한 유디트를 주제로 작품을 그린 또다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관능적

13) 이명옥, Op. Cit, p44.

14) 최승규, 서양 미술사 100장면 (서울: 한영, 1996), p128.

인 여성그림으로 유명하고 장식적인 모티브를 중시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구스타프 클림트 장르간 구분을 넘어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한 빈 분리파¹⁵⁾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¹⁶⁾

그의 작품 '홀로페르네스II'(도 3)에서 유디트는 위협적으로 표현되어져있다. 갈고리 같은 유디트의 손가락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털을 잔인하게 낚아채서 들고있다.

그녀는 몽롱하고 독기 서린 표정과 불룩 튀어나온 가슴의 형태, 어깨 넘어로 미끄러지듯 흘러내린 옷과 예리한 무늬의 곡선 묘사는 강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잔인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화면상 잔인함을 상징하는 흉기인 칼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칼보다 강한 흉기가 바로 유디트의 몸이요 그 육체의 표현 요소가 남자를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유디트를 표현하였다.¹⁷⁾

화려한 황금빛 배경의 구성에 의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든 유디트가 더욱더 잔인하게 두드러지는 강조의 요소와 우수에 찬 검은 눈과 검은 머리색의 역시 매력적이고 위협 적이다. 황금빛으로 인하여 잔인한 유디트가 더욱 돋보이도록 강조의 요소가 잘 표현되었다.

(2) 아르테미스 (Artemis)

또 한명의 잔인한 이미지의 인물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 아르테미스다. 잔인한 이미지의 아르테미스를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Tiziano)는 '다이아나와 악테온의 죽음'(도 4)과 '악테온의 죽음'(도 5)이란 작품으로 이 잔인하고 비극적인 주제를 통해 그 누구도 능가 할 수 없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관능을 표현했다.¹⁸⁾

15) 1898년 예술과 생활의 연결을 추구하고 과거에서 빌려온 것을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예술을 창출하는 미술 운동.

16) 최영미, 화가의 우연한 시선 (서울:들에게, 2002), p56.

17) 신성림, Op. Cit, p51.

티치아노는 이탈리아 화가로 베네치아에 유채화법을 계승하여 피렌체파의 조각적인 형태주의에 대해 베네치아의 회화적인 색채주의를 확립하고 생애의 마지막까지 왕성한 제작 활동을 한 화가다.

로마에서는 디아(Diana)나 영어로는 다이아나(Diana)로 불리는 그리스 신화의 처녀 신이다. 순결한 처녀성의 상징이지만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매력적인 힘을 발휘해 죽음을 부르는 잔인한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한다.¹⁹⁾

그리스 도시 테베(Thabas)의 왕 카드무스의 손자 악테온(Aktaeon)²⁰⁾은 어느 날 사슴 사냥을 하다가 사냥개와 떨어져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악테온은 산속을 헤메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갔고 그곳은 샘가였다. 그곳에서 님프(Nymph)²¹⁾들의 시중 아래 목욕하던 아름답고 관능적인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보고 말았다.

한 남자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게 된 처녀 신 아르테미스는 수치심을 느낌과 동시에 화가 나서 악테온에게 물을 끼얹어 사슴으로 변하게된 악테온은 놀라서 허겁지겁 달아났다.²²⁾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충성스런 사냥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사슴의 냄새를 맡았고 결국 악테온은 처참하게 물어 뜯겨 죽고 말았다.

아르테미스의 일화는 순결한 처녀신의 수치심을 건드린 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팜프 파탈의 잔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이아나와 악테온의 죽음’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나체 형상에 집중된다. 악테온이 깊은 숲 속에서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녀의 시녀인 님프들의 나체를 보는 순간의 충격을 표현했다.

18) 마커스 로드윅, Op. Cit, p41.

19) 이경덕, 그리스 신화 100장면, (서울:가람기획,2000), p8.

20)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사냥꾼.

21)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

22) 이경덕, Op. Cit, p9.

시녀로 보이는 님프가 아르테미스의 오른발을 수건으로 닦고 있고, 작은 흑인 시녀가 아르테미스 뒤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

흑인의 작은 키와 피부색은 대조적으로 아르테미스를 크게 보이게 하고 살결을 더 희게 만드는 강조법의 회화 요소가 표현 되어있다.

처녀신의 나체를 본 악테온에게 내려질 복수의 재앙을 예고하는 듯한 샘 가의 입구에는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듯 괴기스러운 사슴의 머리가 그려져 있다.

어두운 뒷 배경에 의해 나체의 몸들을 강조하는 요소와 나체 자체에서 생기는 음영법의 표현이 잘 나타나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성난 아르테미스 신의 잔인함을 표현하여 잔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악테온의 죽음’도 티치아노 작품으로 악테온이 자신의 사냥개에 의해 찢겨 죽는 잔인하고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 장면에서 보이는 악테온의 공포와 비참한 참상은 실로 압도적이다.

악테온의 모습이 사슴으로 변하는 과정이 혐오스럽게 형상화 되어있고, 사슴으로 변하여 자신의 사냥개에게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잔인하게 표현되어져 있다. 또한 처녀 신 이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모습 역시 압도적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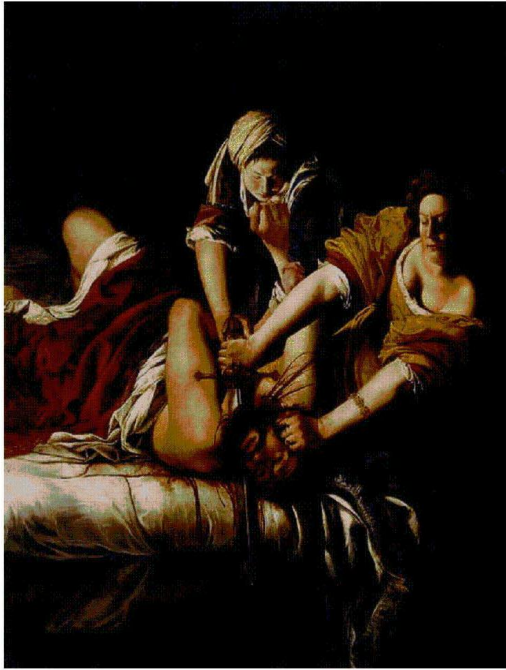
작가는 파격적인 표현으로 아르테미스를 묘사하고 있는데 관람자의 시선은 화살이 날아갈 방향을 따라 아르테미스의 오른쪽 팔에서 시작해 활을 거쳐 사슴으로 변신하는 과정중에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의해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악타이온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회화 요소에서 강한 운동감의 요소다.

수치심이 부른 복수심을 강하게 드러내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과 잔인함을 지닌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화면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분위기를 살려서 명암 대비를 강조했으나 어두운 명도가 훨씬 압도적이어서 잔인함을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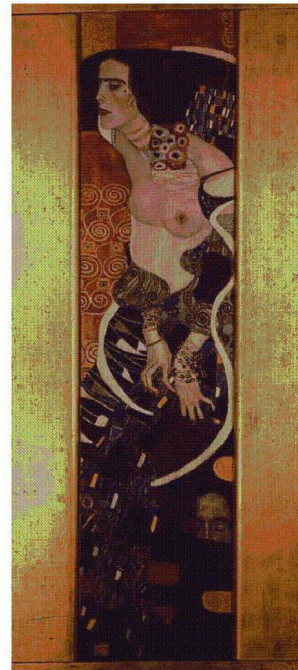
23) Ibid, p19

24) lbd , p20.

지금 까지 잔인한 이미지의 인물이 등장한 회화에서 나타난 요소로는 과감한 형태와 무거운 색조의 사용, 몇몇 작품에 표현된 거친 붓 터치와 요소가 있으며, 명암대비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둠을 더 많이 사용하여 잔인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주인공들의 과감한 포즈나 독기 서린 얼굴표정들의 묘사도 빼놓을 수 없는 잔인함의 요소들이다.



<도 2>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팜프파탈, p46)



<도 3> 구스타프 클림트, 유디트II, (구스타프 클림트, p12)



<도 4> 티치아노, 다이아나와 악테온의 죽음 (서양미술사. p199)



<도 5> 티치아노, 악테온의 죽음, (신화와미술 성서와 미술, p18)

2) 신비

신비한 이미지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 스스로가 매료되도록 강렬하게 끌어들이는 마력의 힘을 가진 이미지이다.

(1) 다나에 (Danae)

신비한 이미지로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나에는 팜프 파탈을 동경하는 남성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비한 에로틱 환상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이후 화가들 사이에서 자주 그려졌던 주제중 하나이다. 이는 여성의 신비스러운 여성의 벗은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²⁵⁾

신비한 모습의 다나에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다나에'(도 6)란 작품으로 다나에가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를 맞아들이는 순간의 신비함과 관능적인 만족감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있다.²⁶⁾

다나에는 그리스에 위치한 아르고스(Argos)²⁷⁾의 왕 아크리시오스(Acrisios)²⁸⁾의 외동딸이다. 처녀 다나에는 남성을 가까이할 수 없었다. 다나에가 자식을 낳으면 장차 외조부를 죽이게 된다는 신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나에의 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남성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청동탑에 가두었다.

그러나 바람둥이 신 제우스는 간혀있는 다나에의 모습에 신비로움을 느껴 그 매력에 푹 빠졌고, 황금비로 변신하여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었다.

다나에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 스스로가 매료되어 동시에 강렬하게 끌어들이는 마력의 힘을 가진 여인으로 팜프 파탈의 신비함을 가진 인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후 다나에는 아들 페르세우스(Perseus)²⁹⁾를 잉태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다나

25) 마커스 로드윅, Op. Cit, p42.

26) 신성림, Op. Cit, p48.

27)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28) 그리스 신화속의 영웅.

에의 아버지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나무 껍질에 넣고 바다에 띄워 멀리 내쫓았다. 그들은 그리스의 세리포스(Serifos)섬 근처에서 구조되어 세리포스섬 왕 폴뤼텍테스의 동생 디튀스와 몇년동안 같이 살았다. 그런데 폴뤼텍테스가 다나에를 보자 욕정을 품게 되고 걸림돌로 생각되는 다나에의 아들을 제거하기 위해 메두사(Medusa)³⁰⁾의 목을 베어 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페르세우스가 떠나자 폴뤼텍테스는 다나에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했다. 하지만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다나에를 괴롭히던 폴뤼텍테스를 돌로 만들어 버렸다.³¹⁾

아름답고 신비한 다나에 에게 품어선 안되는 욕정을 품고 괴롭히던 그는 다나에의 아들까지 제거하려던 남자 폴뤼텍테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내려진 이야기이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다나에' 는 다나에가 제우스를 맞아들이는 신비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홀로이긴 하지만 외롭지 않은 얼굴 표정 편안하게 웅크린 자세로 눈을 감았지만 잠든 것 같지 않은 표정, 빨그레한 볼 벌어져있는 입술, 관능적인 나체로 보아 다나에 그녀는 무언가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³²⁾

둔갑의 도사인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인을 휘감고 있는 황금빛은 반짝반짝 빛나는 표현으로 신비감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소이다. 다나에의 몸의 일부를 가리는 얇은 비단은 보라색과 다나에의 피부색의 노란색이 많이 표현된 색상과는 보색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채도와 명도의 색조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은한 분위기로 나타내었다. 또 한 화려한 황금빛은 장식의 요소로 표현 되었다.

29) 그리스 신화의 영웅.

30)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31) 마커스 로드윅, Op. Cit, p43.

32) 신성림, Op. Cit, p49.

(2) 아프로디테 (Aphrodite)

신비한 이미지의 또 다른 인물은 그리스 신화 속 여신인 아프로디테이다.

아프로디테는 신비스러운 탄생과 육체적인 아름다움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조각가와 화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있는 주제가 되었다.³³⁾

특히 산드로 보티첼리(Botticelli, Sandro)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도 7)의 작품에서 아르테미스는 바닷속에서 떠올라 해변가의 조개 위에서 있는 신비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또 다른 화가 조르조네(Giorgione)는 '잠자는 비너스'를 통해 신비한 요소들로 아르테미스를 표현했다.

영어로 비너스라 불리우는 아프로디테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고 올림포스12신(Olimpos 12 God)³⁴⁾중 한 명이다.

자신의 성격에 걸맞게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으로 성적인 사랑, 여성의 미를 관장한다.³⁵⁾

아프로디테가 여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미녀였음은 그리스 신화의 인간 파리스(Paris)³⁶⁾의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따라서 그녀가 많은 신들의 갈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Hermes)³⁷⁾는 그녀를 너무도 간절히 열망하여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우스에게 간청할 정도였다.³⁸⁾

33) 마커스 로드윅, Op. Cit, p76.

34)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12신, 최고의신 제우스, 그의 아내 헤라, 바다신 포세이돈, 지혜의 여신 아테나, 음악의 신 아폴론,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불의 신 헤파이토스, 싸움의 신 아레스, 여향의 신 헤르메스,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 불의 여신 헤스티아.

35) 최승규, Op. Cit, p276

36)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영웅.

37) 그리스 신화의 수호신.

38) 최승규, Op. Cit, p278.

모든 아프로디테의 힘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프로디테가 원한다면 어떠한 신이나 인간도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열렬하게 사랑하게 된다.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로 날카로운 윤곽의 섬세한 묘사와 풍부한 영감 색채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르네상스 미술이 새롭게 정복한 리듬감으로 특징 지워진다.³⁹⁾

‘비너스의 탄생’에서는 전체적으로 아프로디테의 신비함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다. 전체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림의 분위기는 색상을 대부분 동일한 명도와 채도로 설정하여 부드럽게 표현하였으며,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된 선들, 강렬한 색상의 조화가 아닌 화사하고 은은한 색조의 요소가 신비감을 더해준다.

또한 꽃이라는 지극히 신비스럽고 여성스러운 장식의 요소가 화려하게 느껴진다.

깨끗하게 표현된 아프로디테의 자연스럽고 밝은 화사한 피부표현의 요소도 신비스러운 아프로디테를 느낄 수 있다.

조르조네는 르네상스 최성기의 베네치아 화가로 천부적인 재능으로 동시대의 베네치아 화가들을 단연 능가하였고, 근대 미술로 발전한 나체화의 기초를 만들었다.⁴⁰⁾

‘잠자는 비너스’(도 8)에서 아르테미스는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부드러운 자연을 베게 삼아 조용히 잠들어있는 아르테미스를 표현하였다.

매끈하고 깨끗하게 그려나간 선의 붓 터치, 따뜻하고 은은한 색상의 조화가 신비스럽게 잠든 아프로디테를 살며시 감싸고 있다.

아프로디테 아래 놓여진 비단천은 신비스런 여신의 장식요소로서 잠든 아프로디테를 더욱 신비스런 여신으로 부각 시키고 있는 요소이다.

아프로디테가 등장하는 회화를 통해 신비한 이미지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전

39) 이경덕, Op. Cit,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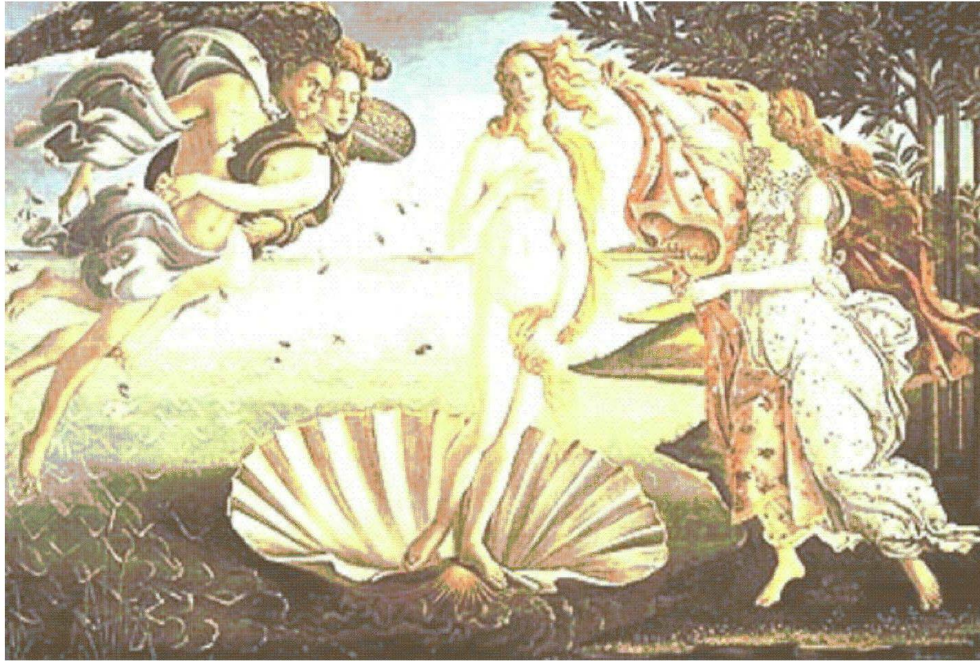
40) www.naver.com

체적으로 은은한 색조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섬세한 선들과 부드러운 형태의 표현, 무겁지 않은 색상의 표현 요소가 신비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요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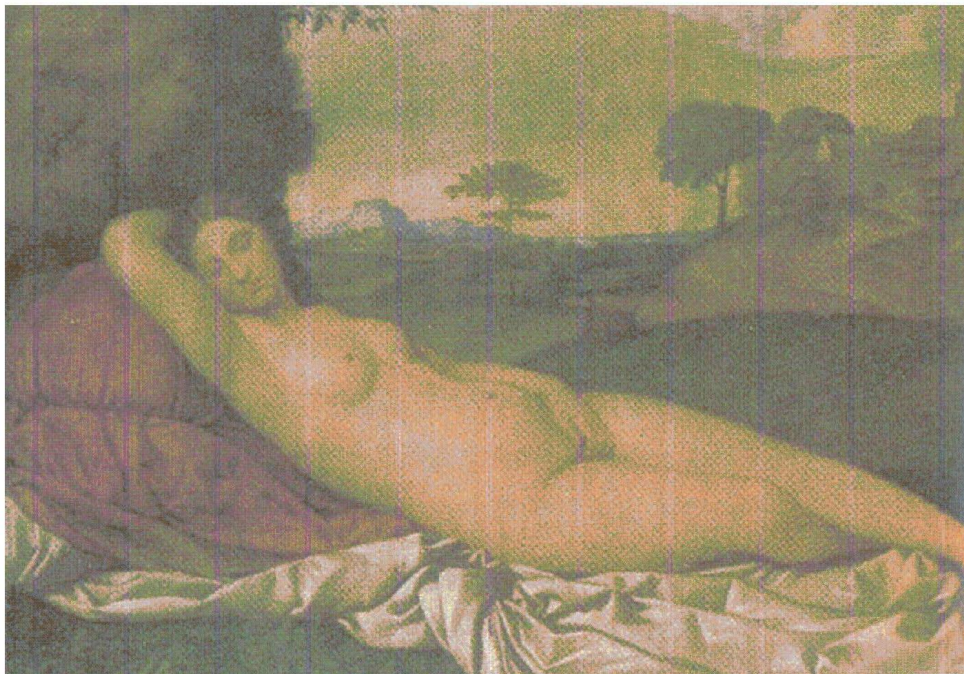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다. 또 하나의 신비한 이미지 요소로는 여성스럽고 화려한 장식이 표현되어 신비함의 매력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도 6> 구스타프 클림트, 다나에, (Gilles Néret, KLIMT, p10)



<도 7>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르네상스 미술여행, p128)



<도 8> 조르조네, 잠자는 비너스, (서양미술사 I, p203)

3) 선정(煽情)

섹시한 자세와 도발적인 표정들로 숨을 멎게 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도발적인 요부형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을 단지 성적쾌락의 도구인 육체에만 탐닉하는 남성들의 속성을 저주하고 지배당하는 성에서 지배하는 역할로 탈바꿈하기 위해 나타난 이미지이다.

(1) 파이드라 (Phaedra)

선정적 이미지로 신화의 등장하는 인물로 파이드라가 있다.

음탕한 파이드라를 화가 피에르-나르시스 케랭은 '파이드라와 테세우스 앞에 선 히폴뤼토스'(도 9)의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또 한명의 19세기 프랑스 인기 화가 알렉산드르 카바넬(Cabanel, Alexandre)이 '파이드라'(도 10)의 작품으로 인륜을 어긴 파이드라의 사랑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묘사했다⁴¹⁾

파이드라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정식 아내다. 그녀는 테세우스(Theseus)의 아들 히폴뤼토스를 사랑한다. 즉 아들을 사랑하는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한 여인이다.⁴²⁾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히폴뤼토스(Hippolytos)⁴³⁾를 유혹하지만 거절당하자 화가난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에게 히폴뤼토스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였다. 자기 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테세우스는 히폴리토스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포세이돈(Posidon)⁴⁴⁾에게 간청하고 이에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보

41) 마커스 로드워, Op. Cit, p61.

42) 정은미, Op. Cit, p57.

43)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아들.

44)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신, 제우스 다음으로 유력한 신.

냈는데 이 괴물을 본 히폴뤼토스의 말이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전차가 뒤집혀 큰 부상을 당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⁴⁵⁾

남편의 아들, 즉 아들을 사랑하고 유혹하려 했던 파이드라를 화가 피에르-나르시스 퀘랭은 '파이드라와 테세우스 앞에 선 히폴리토스'란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피에르-나르시스 퀘랭은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로서 강한 드라마틱한 수법의 아카데미한 화풍으로 역사화를 많이 그린 화가다.

이 작품은 파이드라가 히폴뤼토스를 유혹하려 했지만 인륜을 어길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이다.

자신의 남편 테세우스와 아들 히폴리토스 앞에서 한 쪽 유방을 드러낸채 요염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의 표현과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히폴뤼토스를 복수의 눈길로 쳐다보는 얼굴표정 등의 요소가 인륜을 저버리고도 당당한 파이드라의 선정적인 표현의 설정이다.

파이드라 어깨위에 올려진 테세우스의 손길도, 왕비의 사랑을 만류하는 시녀의 걱정도 아랑곳하지 않는 파이드라의 얼굴 표정을 부각시킨 강조의 요소로 묘사하고 있다.

또 다른 화가 알렉산드르 카바넬은 '파이드라'라는 작품으로 인륜을 어긴 파이드라를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알렉산드르 카바넬은 1845년 이탈리아에서 유학하였으며 고전주의적 화풍으로 역사화, 풍속화, 초상화로 명성을 떨쳤으며 화가로서 오랫동안 영예를 누린 화가이다.

파이드라의 새하얀 알몸의 피부표현에 풀어헤친 검은 색상의 머리, 뒷 배경의 무겁고 어두운 색의 표현 요소는 강한 색의 대비 요소이며, 파이드라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이다.

45) Ibid, p60.

(2) 세이렌 (Siren)

신화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선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등장하는 인물은 세이렌이다.

세이렌의 매혹과 공포의 상반된 감정에 화가들은 매료되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인어 그림으로 손꼽히는 그림은 워터하우스(Waterhouse, John William)가 그린 '인어'(도 11)의 작품으로 선정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된 그림이다.⁴⁶⁾

또 다른 화가 트레이퍼(Herbert Draper)는 '오뒤세우스와 세이렌'(도 12)이란 작품에서 선정적인 세이렌을 도발적으로 묘사했다.

세이렌은 이탈리아 해안의 한 섬에 살던 날개 달린 여인들 혹은 여자의 머리를 한 새들을 말한다.

이 신비한 바다 생물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다. 세이렌의 사랑스럽고 달콤한 목소리는 뱃사공들의 넋을 사로잡아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성을 유혹한다.⁴⁷⁾

세이렌은 유혹한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 곁으로 데려와 동침을 강요한 후 거절하면 그를 죽이고 살을 뜯어먹는 요괴이다.

이런 세이렌들에 에로틱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는 미술 작품 속에서 널리 표현되었던 주제중 하나이다.⁴⁸⁾

우선 워터하우스가 그린 '인어'라는 작품으로 선정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된 그림이다.

워터하우스는 1849년 로마출생이며 부모가 모두 미술가로서 활동했고 그의 작품은 고전주의적 주제를 추구하면서도 이상적인 여인상을 추구한 점이나 사질주

46) 이명옥, Op. Cit, p78.

47) 이경덕, Op. cit, p60

48) Ibid, p111.

의 기법을 사용한 면에서 라파엘 전파(Pre-Raphaelite)⁴⁹⁾의 것으로서 분류되기도 한다.⁵⁰⁾

워터하우스의 ‘인어’ 그림은 깊은 바닷가에서 매혹적인 인어가 해풍을 맞으며 치렁치렁한 황금 빛 머리카락을 빛낸다. 눈부신 금발과 하체를 휘감은 축축한 물고기 꼬리가 더 없이 매혹적이다.

바닷가의 검푸른 색상의 표현과 세이렌의 새하얗게 표현된 알몸은 색상의 대비 요소로 세이렌의 선정적 분위기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보여진다. 또한 세이렌의 피부 표현을 높은 명도의 사용으로 주위 배경에서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가 표현된 그림이다.

또 다른 화가 드레이퍼는 1864년 런던에서 출생하였고, 세인트 존스우드 예술 학교와 로열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으며 컨싱턴에 정착하여 신화적인 주제나 역사적인 주제를 다룬 신고전주의 화가로서 활동하였다.

드레이퍼는 ‘오뒤세우스와 세이렌’이란 작품에서 선정적인 세이렌을 극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했다. 세이렌들이 사는 해안가를 지나가던 오뒤세우스를 유혹하려는 세이렌들과 매혹 당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새하얗게 표현된 알몸으로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성에 굶주린 세이렌들의 선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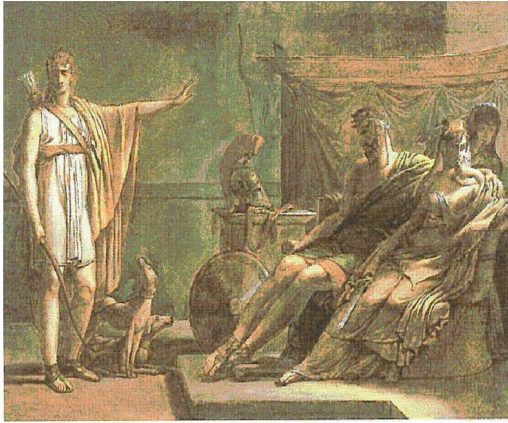
남성들을 유혹하며 노래를 부르는 붉은 색의 입술 색상 표현은 선정적인 세이렌을 더욱더 도발적으로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이다.

세이렌의 새하얀 피부표현과 그들의 노래 소리를 피하려는 남자들의 어두운 피부 표현의 색상 대비 역시 선정적인 세이렌을 부각시키는 요소이다.

49)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자연에서 검허하게 배우는 예술을 표방한 유파.

50) 조용진, 서양화 읽는법, (서울: 사계절 출판사, 1997) p142.

인륜을 저버리고 아들을 사랑한 파이드라, 감미로운 목소리와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세이렌이 등장하는 회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과감한 색채 표현의 요소와 화면 안에서 한부분을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가 나타나고 강렬한 색상의 대비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요소는 선정적 이미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도9> 피에르-나르시스 퀴랭, 파이드라와 테세우스 앞에 선 히폴뤼토스, (신화와 미술 성서와 미술, p61)



<도 10> 알렉산드르 카마넬. 파이드라, (www,naver.com)



<도 11> 워터하우스, 인어, (팜프파탈, p89)



<도 12> 드레이퍼, 오뒤세우스와 세이렌, (신화와 미술 성서와 미술, p110)

Ⅲ. 메이크업에 표현된 팜프 파탈 이미지별 특성

팜프 파탈은 강한 관능성과 죽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서 동물의 본능적 요구 분출 또는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 불행을 야기 시키는 여성을 지칭한다.

19세기 중후엽 이러한 사악한 여성성의 유행은 예술 분야인 문학과 회화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한 장르인 영화에서도 대중들에게 익숙해져갔다. 그 중 말렌 디트리히 같은 여배우들은 이러한 팜프 파탈 이미지를 영화 속에서나 실제 생활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만듦으로서 초기에 여배우 스타 시스템 속에서 대중적 취향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우상으로 여겨졌던 여배우들을 그 당시 여성들은 팜프 파탈의 자세와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유입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모방하여 유행이 되었다.⁵¹⁾

현대에는 복고가 유행하면서 팜프 파탈 메이크업이 끊이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메이크업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⁵²⁾

영화 광고등에서 뿐만 아니라 잡지 모델들이 메이크업에서도 수많은 패션지와 캣워크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면 팜프 파탈의 메이크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을 알수있다.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4대 컬렉션의 많은 쇼에서 팜프 파탈 메이크업이 선보여지고 있다.

51) Vogue girl, (2003, 3)

52) www.makeupforever.co.kr

1. 잔인

남성을 아무 죄없이 극단적으로 살해하거나 철저한 계획하에 살해하는 잔인한 이미지는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 질투심이 만들어낸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상이다.

잔인한 이미지의 화화적 요소는 대표적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무거운 중량감과 어두운 색이 강하게 느껴지는 색조, 입체적이고 음영의 표현요소가 강하게 표현되어져있다.

이러한 회화 요소가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으로는 데카당스(Decadence) 메이크업과 데테스테(Detester) 메이크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데카당스 메이크업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강한 골격미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이다.⁵³⁾

사회적 정신적 공황속에서 일체의 가치를 포기하는 절망론, 심미주의, 자아의 파괴를 자처하는 병리 현상등의 소위 세기말적 병은 이러한 영혼의 상태와 절대의 세계에 대한 갈망 및새로운 것이 데카당스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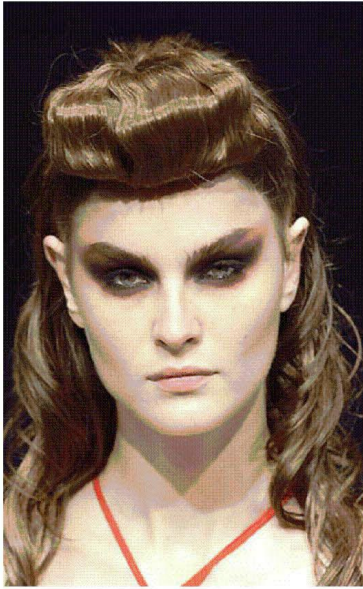
눈 홀(hole), 눈썹뼈, 광대 뼈 바로 윗부분까지 강하게 검정 색으로 칠하고 관자놀이부분과 광대뼈 윗부분은 약간 퍼지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살린 메이크업으로(도 13)의 메이크업은 음산하고 공포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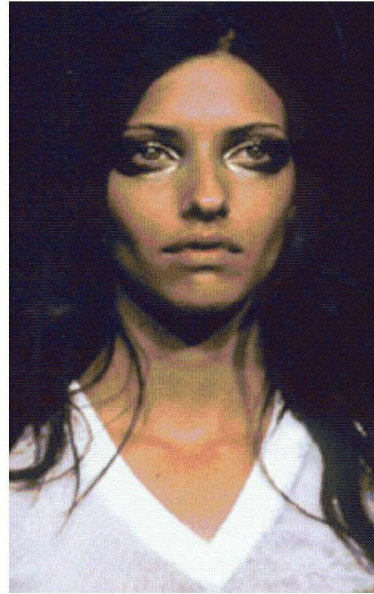
<도 13> 2003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Marie Claire,2003, 2)

53) 강경화,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p82.

54) 한성철,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p15.



<도 14> 2002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Marie Claire,2002,2)



<도 15> www.nco. co. kr

어두운 빨강 색상으로 눈 꼬리 부분을 한껏 칠했고 올려 그린 표현 방법으로 입체감을 표현한(도 14)의 메이크업은 표독스럽고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낸 작품이다.

눈매의 아랫 부분을 어두운 색으로 강하게 색칠하고 볼 부분에도 강한 새도우를 표현하여 남자다운 골격미를 표현한 작품으로(도 15)의 작품은 압도적이며 강하게 느껴 지는 메이크업이다.

프랑스어로 혐악, 증오를 의미하는 단어로 깨끗함, 세련됨, 우아함, 단정함과는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데테스테이다. 데테스트는 미(美)와 추(醜)의 경계는 극히 모호하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추악하고 저속한 것에도 의외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⁵⁵⁾

데테스테 메이크업이란 혐오적이고 괴기스러운 문양이나 추하게 눈물 자욱등을 그려 넣으며 동물의 깃털등을 이용하여 인체를 과장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에서 파생된 것이다.

55) 정삼호, 「현대 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1996),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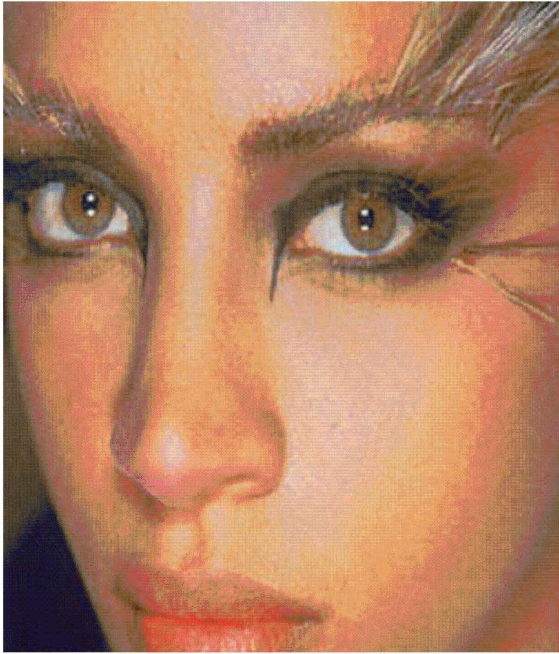
<도 16> 1998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www.firstview.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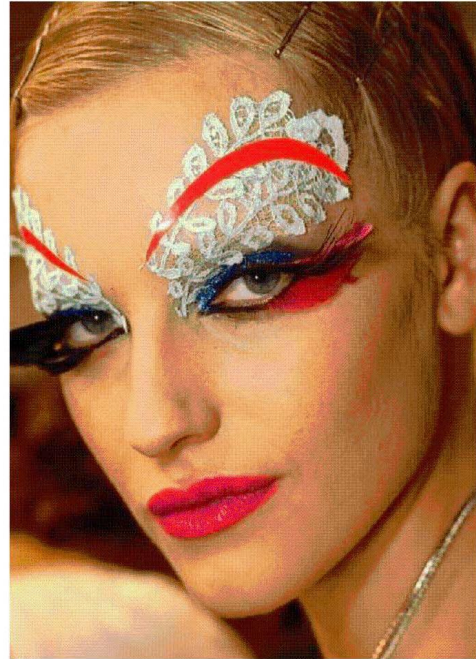
<도 17> 2002,03 F/W, 런던,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s),
(www.domgahtv.com)

눈물자욱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도 16)의 메이크업은 혐오감을 주는 작품으로 표현 하였다.

영화 '베트맨'을 연상 시키는 (도 17)의 작품은 박쥐의 문양을 어두운 회색의 펠로 그려넣어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이다. 또 한 풀어 헤친 머리 모양도 공포의 분위기를 표현하였고 검은색의 의상 역시 괴기스러움을 나타내고있다.



<도 18> 2000,01 F/W, 파리,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www.firstview.co.kr)



<도 19> 2003 S/S, 파리, 크리스찬 디올(Christian-Dior),(Marie Claire,2003,2)

동물을 연상시키는 눈매의 표현과 동물의 깃털을 눈썹부분과 눈 꼬리 부분에 표현하여 (도 18)의 메이크업은 괴기스럽고 혐오감을 주는 작품이다.

과장된 눈썹의 표현과 새의 깃털을 속눈썹 부분에 붙여서 (도 19)의 메이크업은 괴기스럽고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데카당스 메이크업과 테테스테 메이크업은 공포스럽고 음산한 이미지, 괴기스러움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법의 메이크업으로 팜므 파탈의 주제에서 잔인한 이미지의 요소 즉, 어두운 색조의 사용과 입체감의 요소가 잘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으로 설명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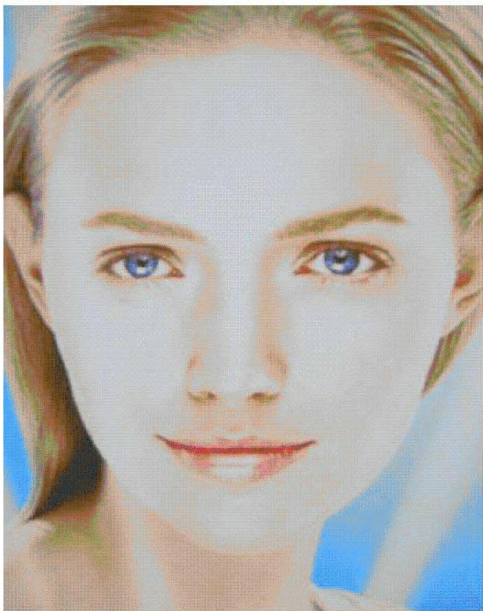
2. 신비

남성들 스스로가 매료되어 여성에 대한 에로틱한 성적 환상을 만들어 내도록 마력의 힘을 가진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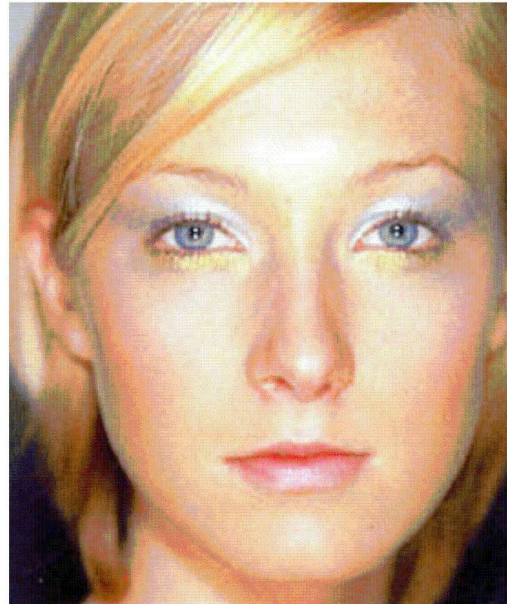
회화에서 나타난 신비한 이미지의 요소는 여성스러우며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의 요소, 화사한 색상 표현의 요소등이다. 한부분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한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화려한 장식적 요소또한 특징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용되어져 팜프 파탈의 신비한 이미지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종류로는 내츄럴(Natural)메이크업과 화이트(White) 메이크업으로 그리고 환타지(Fantasy)메이크업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내츄럴 메이크업은 인위적인 메이크업 보다는 자연스러움으로 연출하는 메이크업으로 전체적인 조화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메이크업이다.⁵⁶⁾



<도 20> ESTEĒ LAUDER, (Elle korea,2003,4)



<도 21>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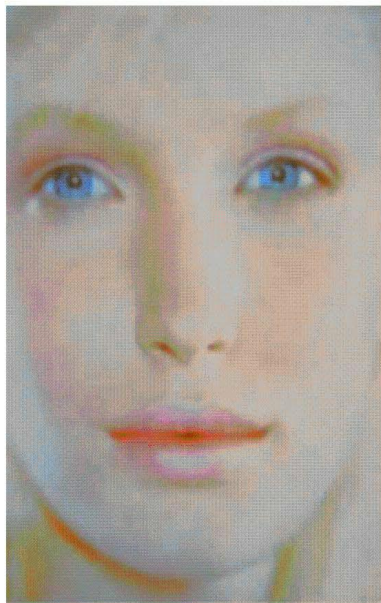
56) 방수지, Op. cit, p160.

강조되는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밝은 채도와 명도로 동일하게 표현한(도 20)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이다.

피부 톤 부터 밝고 화사하게 표현했으며 화사한 느낌의 색상의 사용은 과장된 느낌보다는 펄(pearl)감의 신비하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도 21)의 메이크업은 부드럽고 따뜻함이 느껴진다. 볼 터치는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듯 상기된 자연스러움으로 표현하였다.

화이트 메이크업은 깨끗함, 순수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화이트 색상에 의해 분류된 메이크업의 한 형태이다.⁵⁷⁾

본 논문에서도 팜므 파탈의 신비한 이미지가 회화에서 깨끗한 분위기의 요소로써 화이트라는 색상에 중점을 두어 분류한 메이크업이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입술이나 눈 화장에 표현하여 나타내는 메이크업이다.



<도 22> Christian-Dior, (Vogue korea,2002,4)



<도 23> 2003, 04 F/W, 밀라노, 펜디(Fendi),(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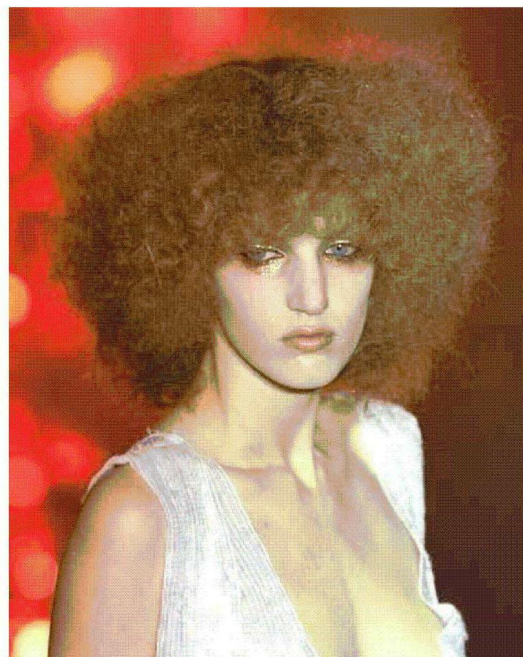
57) 강경화, Op. cit, p106-107.

강한 빛을 받은 듯 창백해 보이는 피부표현의 (도 22)작품은 화이트 메이크업이다.
 눈 언더라인에 화이트 색상의 라인을 표현한(도 23)의 작품도 화이트 메이크업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환타지 메이크업은 장식적 요소를 접목시킨 메이크업의 종류이다. 추상적인 표
 현의 요소 즉,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거나 그림이 아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
 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강하게 표현 하는 메이크업이다.⁵⁸⁾



<도 24> 2003 S/S, 파리, 크리스찬
 디올(Christian-Dior), (Marie Claire,2003,2)



<도 25> 2003 S/S, 런던, 라파엘
 로페즈(Rafael Lopez), (Marie Claire,2003,2)

얼굴 전체에서 중앙 부분에는 하얀 색으로 표현하고 가장자리를 파랑 색으로
 그라데이션 시킨 작품으로 (도 24)의 메이크업은 얼굴과 목 전체를 물감으로 칠
 하는 회화성이 짙은 환타지 메이크업이다.

반짝이는 금색의 새도우를 눈 주위에 표현하여 반짝거리는 느낌으로(도 25)의
 메이크업은 신비스러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58) 방수지, 「메이크업 아트」 (서울: 성화, 2001),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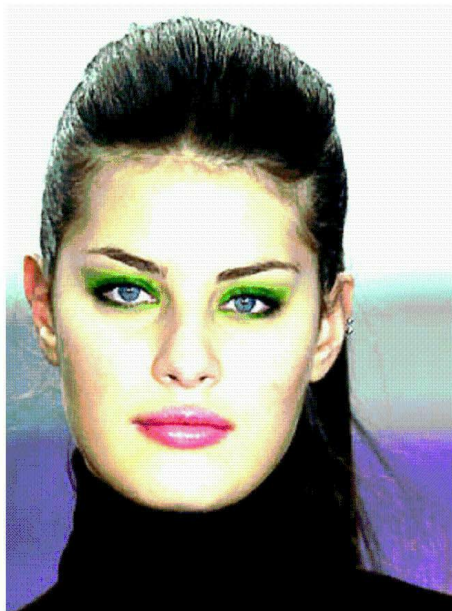
3. 선정 (煽情)

섹시한 분위기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매혹적인 요부의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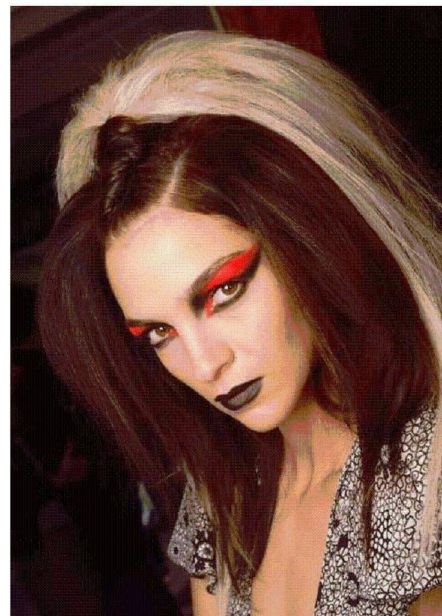
회화에서의 선정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강한 색상과 함께 색의 대비 요소가 있다. 어느 한부분을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 또한 선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다.

이런 대표적인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으로는 글램(Glam) 메이크업과 스모키(Smoky) 메이크업으로 분류 될 수 있다.

퇴폐적이면서 인위적인 도시감각이 표현되는 글램 메이크업은 도발적인 화장법으로 진하고 선명한 입술 화장, 파란색의 눈 화장등 색의 대비가 강한 메이크업이며 얼굴 전체를 감싼 듯한 볼 터치등의 표현 요소⁵⁹⁾로 팜프 파탈의 선정적 이미지의 요소가 잘 적용된 메이크업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도 26> 2002,01 F/W, 뉴욕,
안나수이(Anna Sui),
(www.firstview.com)



<도 27> 2003 S/S, 밀라노,
베르수스(Versus), (Marie
Claire,20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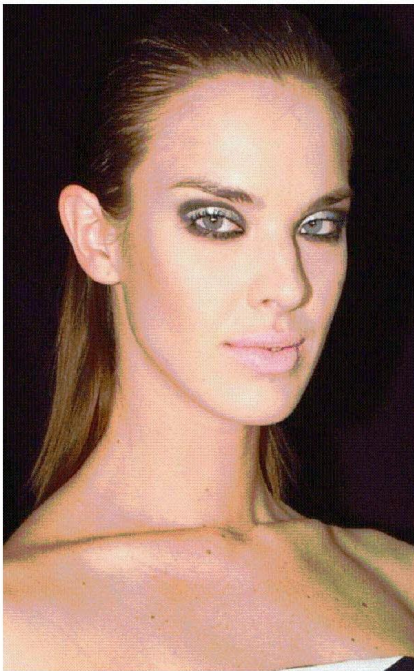
59) 천지연외, FACES IN MAKEUP, (서울: 청구 문화사, 2000), p40.

선명한 녹색의 아이 새도우와 분홍색의 입술로 표현한 (도 26)의 작품은 강한 색상의 대비요소가 표현된 메이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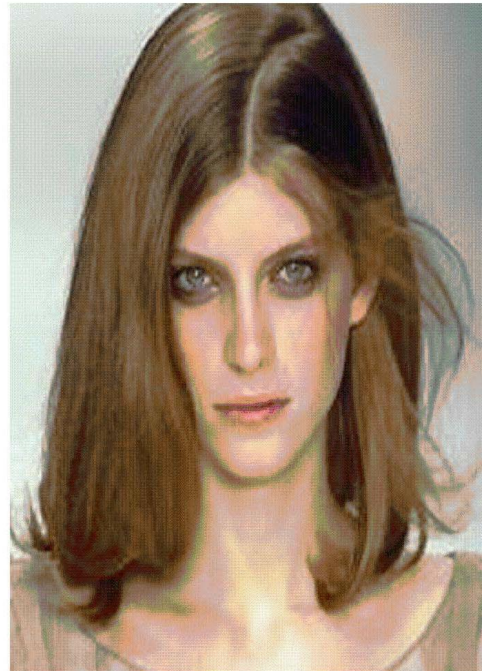
짙은 입술 화장, 과장된 듯한 붉은색의 진한 아이메이크업의 (도 27)의 작품은 도발적으로 보이는 메이크업이다.

스모키 메이크업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어서 스테이지 메이크업으로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변화로 보다 독특한 메이크업 패턴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다.⁶⁰⁾

스모키 메이크업은 눈매를 강렬하게 표현하여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 28> 2003,04 F/W, 파리,
셀린느(Celine),(www.dongahtv.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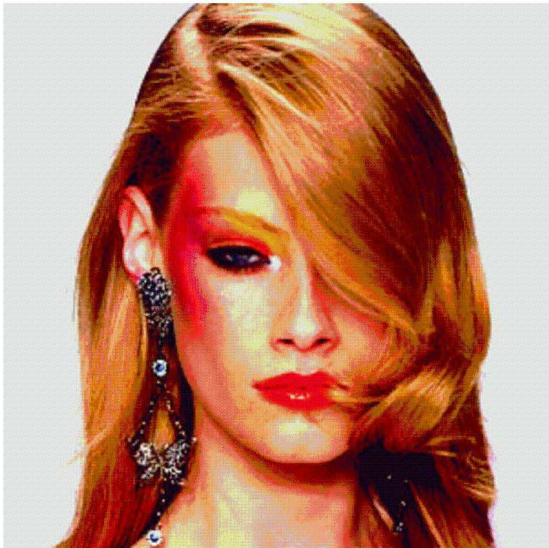
<도 29> 2002,03 F/W, 밀라노,
막스마라(MaxMara), (www.firstview.com)

강한 검정색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쌍꺼풀 라인은 강한 블루 펄 새도우로 표현하고 입술은 피부색과 같은 색으로 매트하게 표현한(도 28)의 작품은 섹시함을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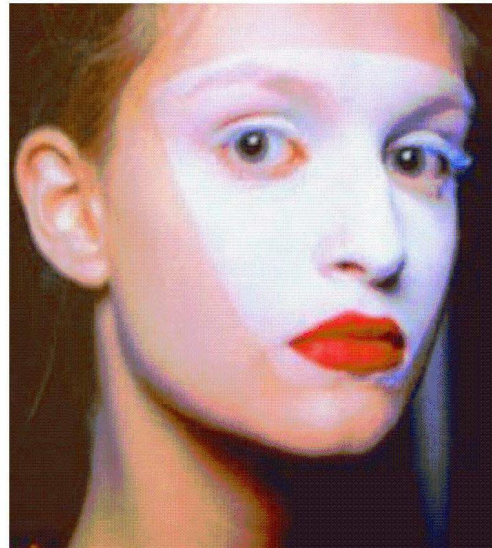
60) www.erato.co.kr

뿌연 안개를 연상시키는 (도 29)의 메이크업은 섹시한 느낌을 연출한다.

스모키 메이크업은 검정 색이 기본 컬러이지만 컬러풀한 색으로도 가능하며 다양한 컬러를 톤 온 톤(tone on tone)으로 겹쳐서 섹시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도 30> 2004 S/S, 파리, 발렌티노(Valentino), (Bazaar,2003,12)



<도 31> 2003 S/S, 런던, 보디카(Boudicca), (Marie Claire,2003,2)

노란색과 빨강 색의 컬러풀한 색도우로 눈 화장을 표현한(도 30)의 작품은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선정적 이미지의 색 대비 요소가 적용된 메이크업이다.

또한 팜프 파탈의 선정적 이미지에서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로 강한 색상으로 입술에 포인트(point)를 주는 메이크업의 표현법이 있다.

선명한 빨강 립스틱이 창백한 얼굴, 누드 아이 메이크업을 돋보이게 하는 (도 31)의 작품은 섹시함을 강조한다.⁶¹⁾

61) ww.joins.com

IV. 팜므 파탈 이미지를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팜므 파탈 주제에서 잔인, 신비, 선정의 이미지의 회화요소를 분석하였으며, 회화 요소를 접목시킨 메이크업을 연구하였다. 본 IV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자가 메이크업을 작품화시키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를 배경으로 회화, 메이크업, 본 연구자의 작품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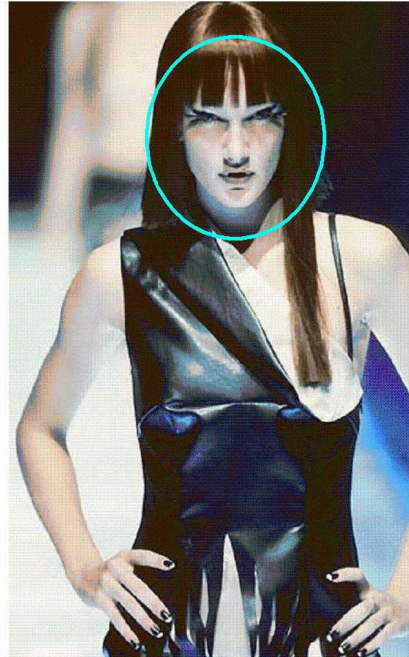
1. 잔인

팜므 파탈의 주제에서 분류했던 잔인한 이미지의 대표적 요소로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무거운 중량감과 어두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색조, 입체적이고 음영의 표현요소가 강하게 표현 되어져있다.

이러한 회화 요소가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으로는 데카당스 (Decadence) 메이크업과 데테스테 (Detester) 메이크업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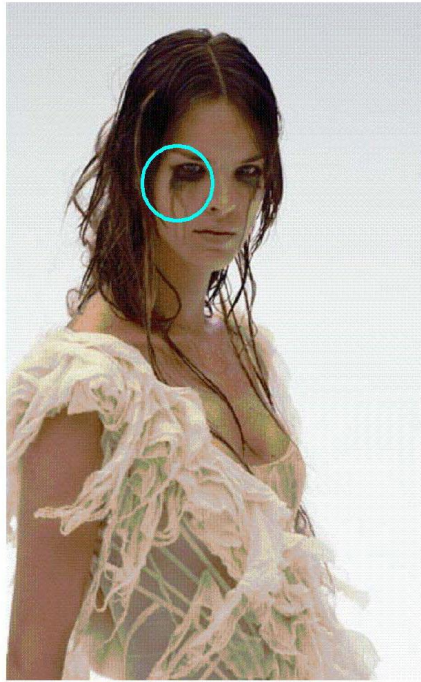
<도 2>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팜프파탈, p46)



<도 32> 1998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
9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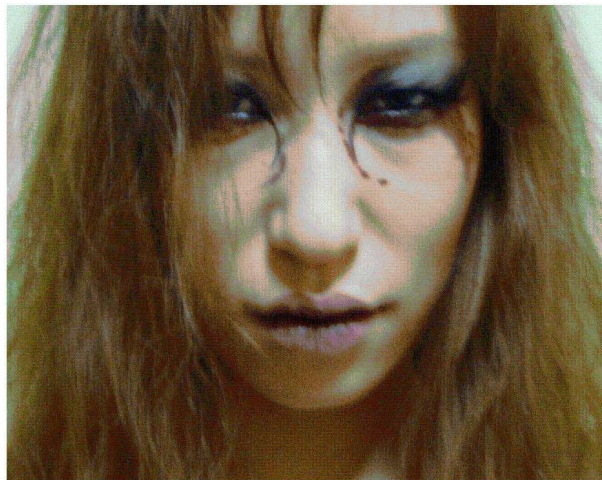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도 2)의 작품에서 표현된 어두운 색상의 목을 베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표현되었다.

메이크업에서는 눈매를 어두운 색으로 강하게 색칠하고 볼 부분에도 강하게 섀도우를 넣어서 남자다운 골격미를 표현한 작품으로(도 32)은 압도적이며 강하게 느껴지는 메이크업이다.



<도 33> 2003 S/S, 런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s),(www.firstview.com)

눈물자욱을 과장되게 표현하여(도 33)의 메이크업은 혐오감을 느끼는 작품이다.



<도 34> 잔인 이미지

본 연구자가 표현한 작품은 강렬한 느낌의 동물 눈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붉은

피눈물을 표현하여 공포감을 (도 34)의 작품에서 표현하였고, 헤어스타일도 정돈되지 않고 거칠게 흐트러서 공포스러움과 괴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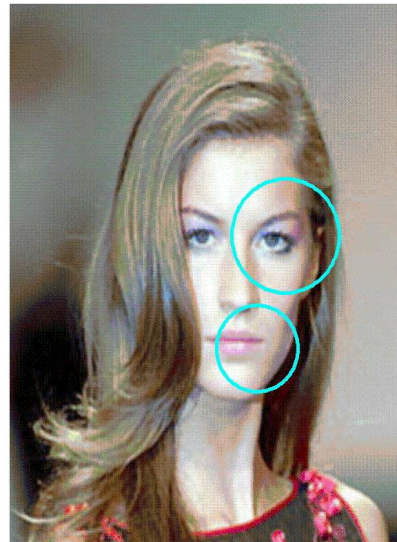
2. 신비

회화에서 나타난 신비한 이미지의 요소는 여성스러우며, 화사한 색상 표현의 요소등이다. 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화려한 장식적 요소 또한 특징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용되어져 팝아트 파탈의 신비한 이미지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종류로는 내츄럴(Natural)메이크업과 화이트(White) 메이크업 그리고 환타지(Fantasy)메이크업을 배경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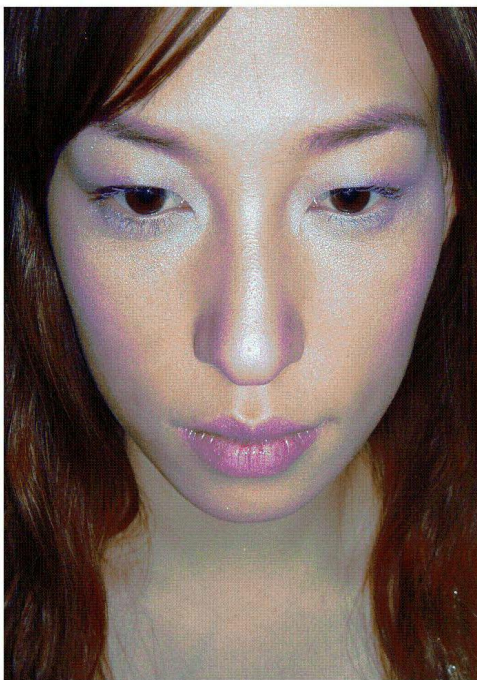
<도 6> 구스타프 클림트, 다나에, (Gilles Néret, KLIMT,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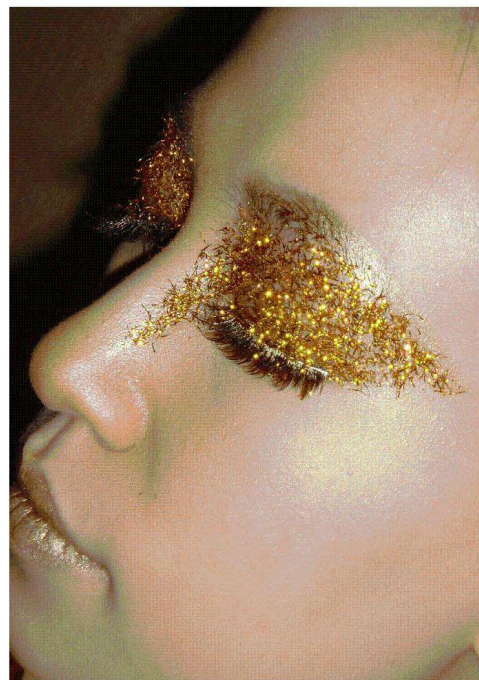
<도 35> 2000 S/S, 파리, 발렌티노(Valentino), (www.firstview.com)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다나에’(도 6)에서 은은한 분위기 동일한 채도와 명도의 자연스러운 표현 요소와 황금의 장식적인 요소가 묘사 되었다.

메이크업은 피부 톤 부터 밝고 화사하게 표현하고,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 색상의 사용으로(도 35)의 작품은 과장된 느낌보다는 신비하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부드럽고 따뜻함이 느껴진다. 볼 터치는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듯 상기된 자연스러움으로 표현하였다.



<도 36> 신비 이미지 - 1



<도 37> 신비 이미지 - 2

본 연구자의 작품은 피부를 밝게 표현했으며 가벼운 느낌의 파스텔 색상 사용으로 과장되지 않는 펄(pearl)감의 신비하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도 37)작품에서 부드럽게 표현 하였다.

또 다른 작품은 황금빛의 재료를 이용하여 (도 38)의 메이크업은 장식의 요소로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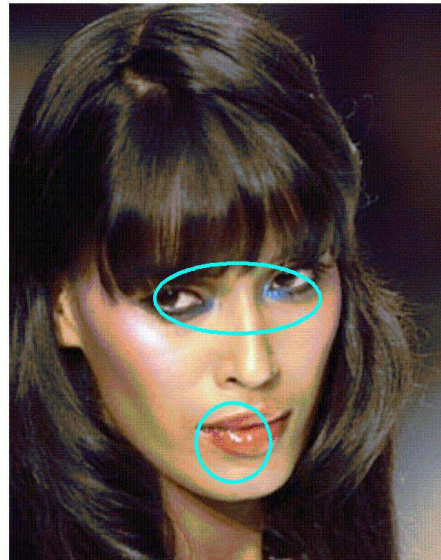
3. 선정(煽情)

선정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회화요소로는 강한 색상과 함께 색의 대비요소가 있다.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 또한 선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다.

이런 대표적인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메이크업으로는 글램(Glam) 메이크업과 스모키(Smoky) 메이크업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품 표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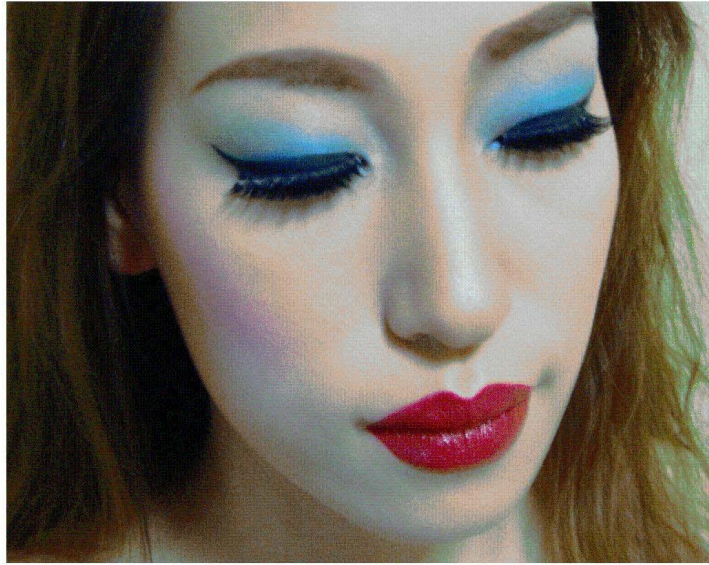
<도 12> 오뒤세우스와 세이렌



<도 38> 2004 S/S, 파리, 발렌티노 (Valentino), (www.firstview.com)

'드레이퍼'의 작품 '오뒤세우스와 세이렌'(도 12)에서 표현된 강한 색대비 요소가 대표적이다.

선정 이미지의 회화요소를 도입시켜 나타난 메이크업은 파랑 색의 아이섀도우와 빨간색의 입술 화장으로(도 38)에서 색상의 대비로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도 39> 선정적 이미지

연구자가 표현한 파란색의 아이 섀도우와 보색 관계에 있는 빨강 색의 입술 표현으로 (도 39)의 작품은 강한 색 대비를 표현한 메이크업으로 작품화했다.

IV. 결 론

현대의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수많은 유형의 예술적 영역의 표현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예술적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메이크업은 시대를 거처오면서 미적 생태적 본능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따라 인간의 미의식을 다양한 예술 장르로의 발전해 가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메이크업의 강한 시각적인 특성 때문에 주요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로써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각적 개념이 기본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메이크업은 예술영역으로서의 폭 넓은 활용 가능성과 작가의 정신이 깃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더욱 발전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메이크업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다른 잔인, 신비, 선정의 이미지를 범주로 하고 이 3가지 이미지는 세기말 예술분야인 회화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팜므 파탈의 주제에서 분류하였다. 팜므 파탈은 강한 관능성과 죽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여성상으로 본능적 욕구 분출, 또는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 불행을 야기 시키는 여성을 지칭한다.

팜므 파탈 정의와 출현 배경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팜므 파탈을 3가지 이미지로 분류한 인물들은 신화와 성서의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문헌자료를 통하여 분류 분석을 하여 보았다. 회화적 요소를 메이크업의 요소와 접목시키기 위해 이미지 별로 분류한 각각의 인물이 등장한 회화작품을 관련서적 등을 통해 19세기 전후의 화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선별한 작품에서의 회화요소

들을 연구하여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회화요소들이 접목되어진 메이크업을 4대 컬렉션과 잡지, 인터넷 등의 메이크업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여 보았다. 마지막 연구는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배경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각각의 이미지의 요소들을 적용시킨 메이크업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첫째, 예술분야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과 메이크업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회화에서 표현되어진 요소들과 메이크업에서도 동일한 요소를 갖는다.

회화적 요소와 메이크업의 요소는 색조, 명암, 음염, 강조, 색의 대비, 운동감의 요소들로 동일하게 표현된다.

둘째, 팝아트 파탈의 주제를 잔인, 신비, 선정의 이미지로 분류 될 수 있다. 분류된 인물들이 등장하는 회화작품 역시 각기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회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잔인한 이미지에서는 공포스러우며 극적인 명암법, 어두운 색상의 표현 요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비한 이미지의 작품에서 표현된 요소는 여성스럽고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 사용, 섬세한 붓 터치 등의 요소가 나타난다.

선정적 이미지에서는 색의 대비 요소와 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강조의 요소로 분석 할 수 있다.

셋째, 분석한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메이크업 작품에서는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 종류가 나타난다. 잔인한 이미지의 회화적 요소가 적용된 메이크업으로는 공포스러움과 괴기스러움의 요소로 나타나는 데카당스 메이크업과 데테스테 메이크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비한 이미지는 회화적 요소가 적용된 메이크업에서도 내추럴 메이크업과 캐

뜻함을 상징하는 화이트 컬러에 중점을 둔 화이트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장식성이 많이 표현되고 회화기법이 표현된 환타지 메이크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정적 이미지는 색의 대비요소, 강조 등의 요소가 도입된 메이크업으로 도발적인 이미지의 글램 메이크업과 강조의 요소로 색의 대비 요소로 표현 할 수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으로는 직접적으로 회화 작품과 메이크업을 연관시켜 연구한 자료들이 부족하였다. 회화적 요소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설명된 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작가의 주관적 작품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만을 위주로 하게 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메이크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메이크업의 요소만으로는 의도하는 이미지를 충분히 연출 할 수 없어서 부수적인 요소 즉, 헤어나 의상, 모델들의 포즈와 얼굴 표정 등의 요소들과 함께 연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메이크업이 예술영역인 회화와 동일하게 메이크업의 요소들만으로도 충분한 이미지가 표현되고 연상될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작가의 깊은 정신이 의도된 작품발표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 김경순 외, Make-Up II, (서울: 청구문화사, 2000)
- 노성두, 보티첼 리가 만난 호메로스, (서울:한진아트, 1998)
- 라이너 마리아 릴케, 르네상스 미술 여행, 김향 역, (서울:가람기획, 2002)
- 로지카 파커·그리젤다 폴록,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 (서울:시작과 언어, 1995)
- 린다 노클린, 페미니즘 미술사, 오진경 역, (서울:예경, 1997)
- 마커스 로드윅, 신화와 미술 성서와 미술, 유영석·김수정 역, (경기 : 아트나무 2003)
- 미술사 연구회, 19세기 서양 미술사, (서울 : 강남 교육원, 2002)
- M&B 메인 스톤, 서양미술사 강화 17세기의 미술, (서울 : 도서출판 예경, 1991)
- 박서보·오광수, 구스타브 클림트, (서울:재원, 2003)
- 빅 드 동테르, 세이렌의 노래, (서울:시공사, 2002)
- 버나드 베른슨, 르네상스의 이데리 화가들, 최승규 역, (서울:한명출판, 2000)
- 방수지, 메이크업 아트, (서울 : 도서출판 성화, 2001)
- 신성림, 클림트 황금빛 유혹, (서울 : 다빈치, 2002)
- 이명옥, 팜프 파탈, (다빈치 : 서울, 2003)
- 이주현, 화가와 모델, (서울:예담, 2003)
- 이경덕, 그리스 신화 100장면, (서울 : 가람기획, 2000)
- 에미말, 서양미술사 I, 정진국 역, (서울:눈빛, 2001)
- 월쿨터만, 미술사의 역사, (서울:문예출판사, 2002)
- E.H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백승길·이종승역. (서울:예경, 1994)

정은미, 화가는 왜 여자를 그리는가, (서울: 한진아트, 1998)

정삼호, 현대 패션 모드, (서울:교문사, 1996)

조용진, 서양화 읽는 법, (서울 : 사계절 출판사, 1997)

지오바니 카셀리, 그림으로 보는 토마스 불 핀치의 그리스·로마 신화,(서울 : 윤
컴, 2000)

장세현, 세상 모든 화가들의 이야기. (서울: 꿈소담이, 2000)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피아주 예술, (서울 : 청구문화사, 1999)

천지연외, FACES IN MAKEUP, (서울: 청구 문화사,2000)

최영미, 화가의 우연시선, (서울 : 들에게, 2002)

최승규, 서양 미술사 100장면, (서울, 한영, 1996)

캐롤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0)

토마스 불 핀치, 신들의 정성시대,(서울: 청해, 2000)

팀 베린저, 라파엘 전파, 한영화 역, (서울: 예경, 2002)

이화진, 팜프파탈 Femme Fatale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정은순, 메이크업에 있어 시즌 컬러의 유행경향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예술
대학원, 2002)

한성철,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1996)

Gilles Néret, KLIMT, (TASCHEN, 2000)

월간미술, (서울: (주) 월간미술, 2001)

Bazaar, (2003)

Elle korea, (2003)

Marie Clarie korea, (2003)

Vogue korea, (2002)

Vogue Girl, (2003)

www.daum.net

www.dongahtv.com

www.erato.co.kr

www.firstview.co.kr

www.joins.com

www.makeupforever.com

www.naver.com

www.nco.co.kr

ABSTRACT

A Study on Make-ups and Femme Fatale Images of Characters in Paintings

Nam, Sun Mi
Major in Make-up · Stylis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n make-ups introducing a pictorial element through a theme of femme fatale, an image of an enchantress which was very popular in fine arts at the end of century.

To study the femme fatale in more detailed, it's classified with three images of cruelty, mystery and decadence. It classified figures with these images to explain their backgrounds, selected pictures including those figures to analyze and explain elements expressed each image and studied make-ups applied by the elements.

In the 1st chapter of the study, it suggests the purpose and method of study, and in the 2nd chapter, examines the definition of femme fatale and its background of social appearance, and classifies and analyzes femme fatale with three images and elements of image in pictures of each image. In the 3rd chapter, it analyzes make-ups applied by elements of each femme fatale image studied in chapter II.

In the last conclusion chapter, it suggests further task of study along with results and summarization of the study.

As a method of the research for this study, it finds out characteristics of femme fatale through literary examination and analyzes images based on figures appeared on myths and the bible. It studies pictures of painters around 19th century and examines make-ups of collections of 2003 S/S, 2003,04 F/W based on pictures of magazines and internet sites.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ly,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paintings and make-ups in expressive ways because elements appeared on paintings and make-ups shows similarities each other.

Secondly, there are striking comparison between light and darkness and dark color use.

Thirdly, there are many ornamental element introduction and elements of soft and light color use with delicate brush touch in paintings with mysterious image.

Lastly, it's appeared in variety with gloomy atmosphere and strong color use in paintings with decadent image.

In this study, it's expected more active study on make-ups to express and remind images with only their elements without subsequent elements like hair or costume.